효과적인 에이즈 예방 교육

콘돔사용의 필요성 인식시켜야

:: 유은주 본회 교육연수과장

앞서 한국 남성의 성문화를 살펴 보았다. '성을 산다'는 죄의식은 차치하더라도 본인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성매매에 많은 남성들이 노출되어 있다. 이런 남성들에게 효과적으로 에이즈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몇 해 전 전남 여수 성매매 밀집지역의 한 여성이 HIV에 감염된 상태에서 2년간 성매매를 지속했던 사실이 밝혀져 큰 사회문제로 부각된 적이 있었다. 더구나 그 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적게 잡아도 2,000여 명과 성매매 경험이 있었고, 이중 콘돔을 사용한 경우는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고 했다. 해당 지역 인근의 남성뿐만 아니라 타 지역 남성들로부터 '문제'의 여성 감염인의 인상착의를 묻는 전화가 쇄도했고, 보건소의 에이즈 검사 시약이 동이 날 정도로 에이즈 익명검사 건수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사실 그 여성은 자신이 HIV 감염인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성 고객에게 콘돔을 사용할 것을 권했다고 했다. 하지만 대부분 콘돔 사용을 거부하거나 그 여성의 성을 사지 않고 돌아나갔다고 말했다. 이 남성들은 성병에 걸리지 않은 여성이라면 콘돔을 사용하자고 권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누구나 HIV 감염 가능' 인식해야

이 사건은 최근 전년대비 35% 이상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하나의 예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 에이즈 관련 민간단체에서 줄곧 "에이즈 감염여부는 신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상대와 성관계를 할 때는 항상 콘돔을 그것도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교육해 왔지만, 현실 속의 개개인들은 이런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에이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HIV 감염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HIV에 감염될 수 있다는 상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HIV 감염은 일부 특별한 사람(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성매매 여성, 동성애자 등)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는 생각은 일상생활 속에서 에이즈 예방 실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성문화의 음지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남성들 사이에 광범위한 공통된 경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성매매이다.

상식적으로 불특정 다수와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 성매매 여성이 에이즈 고위험군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면서도 도처에서 성매매가 성행하는 것을 경험하고, 또 이들 여성들이 보건소에서 수

시로 성병과 에이즈에 대한 검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면서, 성매매를 통한 에이즈 감염을 예방하는 태도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비공식적인 정보이지만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하루 밤에 수차례 성관계하는 데서 오는 육체적 고통과 자신의 비관적인 현실을 잊기 위해 (유사)마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리고 성을 구매하는 남성들 대부분이 술자리를 2~3차 거치거나, 술에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이런 가운데 일어나는 성관계에서 콘돔이 지속적이고 정확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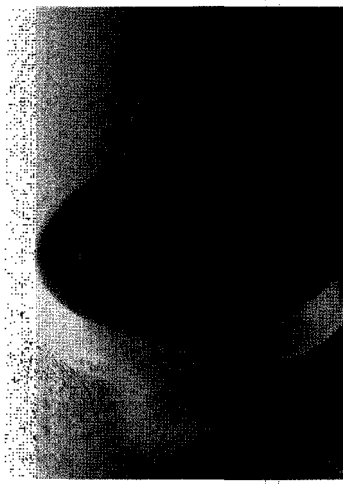
콘돔 요구하는 여성을 오히려 불신

한편으로 성관계가 일상인 성매매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남성 고객에게서 옮아오는 성인성 질환을 막기 위해 콘돔을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남성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콘돔을 사용하지 않으면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여수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콘돔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성매매 여성은 성병에 걸려있는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남성 구매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안전한' 성매매 여성들이라면 콘돔을 권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여성들이 정기적으로 검진 받고 있기 때문에 콘돔을 사용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단적으로 실상을 이야기하면 이런 생각은 '무지와 편견'이다. 성매매 여성들 중 일부(특수업태부, 다방 여종업원,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의 여종업원)가 전염병 예방법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성병 · 에이즈 검진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되어있을 뿐이다.

이들은 해당 법에 따라 1주일에 1회씩 주요 성병검진을, 6개월에 1회 에이즈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다. 지역에 따라서 에이즈의 경우 3개월에 1회씩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성매매는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비공식적인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갈수록 비공식적인 영역의 성매매가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성매매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공식적으로 조사된 수치의 몇 배가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즉 전국의 성매매 여성들이 일제히 한명도 거르지 않고 이 검사에 응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검사를 받은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검사 주기 전에 발생한 성매매에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고객을 상대한다면, 또 그 고객이 불행히도 성병 혹은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콘돔미사용자의 HIV감염 위험은 1만배 높아

우리 단체가 운영하는 에이즈 상담전화 중 술자리 2차나 (해외) 출장 중에 일어난 성매매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에이즈 감염을 걱정하는 사례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경우 콘돔을 정확히 사용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 형편이다.

또 근래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의 경우, 십대 여성이고 성관계 경험이 적기 때문에 성병이나 에이즈로부터 안전하다는 생각하고 이들을 선호하는 잘못된 오해도 많다고 한다. 오히려 십대는 아직 성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잦은 성접촉으로 인한 질환에 성인보다 더 취약하다.

미국 '성병감염질환' 저널지에 따르면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콘돔을 사용하는 사람에 비해 HIV에 감염될 위험이 1만 배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에이즈 감염은 편재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모습이다. 아래 소개한 에이즈 예방 ABC는 이제 우리 모두의 실천 과제이다.

Abstinence	금욕하거나 성관계 시작 시점을 늦추기
Be faithful	감염되지 않은 한 파트너에게 충실하기
use a Condom	A, B를 실천하지 못했다면 항상 정확하게 콘돔을 사용하기